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 ‘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 207건...압수수색 하루 만에 59건 ↑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씨 일가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세입자들을 만나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한 가운데 관련 고소장 접수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18일 낮 12시 기준 총 207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310억여 원이다.

### 피해액 310억여원 상당...경찰, 조만간 피고소인 2차 소환 조사

경찰은 정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등 부동산중개 사무실 관계자 15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했다. 이 역시 전날까지 6명에 불과했던 피고소인의 숫자가 하루 사이에 크게 늘었다. 이는 경찰이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에 착수, 이 사건 수사를 강제 수사로 전환한 여파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보도된 직후 세입자 등 9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는 하루 종일 압수수색 관련 뉴스와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경찰은 하루 만에 고소장이 폭증함에 따라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피해 사실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향후 피해가 우려되자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련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 후 정씨 일가를 소환해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조만간 2차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재입대까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존의 호소문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이다. 이들은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 2천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김민재 기자

## 尹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이종석 헌법재판관 출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조규현 기자

##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野 반발에 국감 출석 무산 공익신고 조명현씨, 얼굴·실명 공개...“野, 무엇이 두려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출석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18일 국회 소동관에서 국민의힘 장영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씨가 언론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며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 법의 잣대가 누구나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보다 바른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가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등 부패 행



조명현, 국감 참석 방해 규탄

위와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고 구조금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 감결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토평 묻혀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이게 방탄 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무위 국감 출석은 무산시켰지만, 다른 국감에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것까지 민주당이 무산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26일 열리는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할 방침이다. /송진영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개을리자

손하나 까딱 안해도 자동으로 딱!

자율로 미세하여 수익으로 돌려주는 KB증권 예수금 자동 저축통

투자를 똑똑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100호(2023.06.12~2024.06.11)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해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장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입력 또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개별주주권) HFS, 해외주식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0.1275% + 2,000원/오버워치 0.1975% 일률 적용하며, 기타 차익(배당금 등)은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본 상품은 은행서신용 등급(AA+, 2023.03.28 한국신용평가의 신용 위험등급)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잔액등급은 AAA/AA+/A/BBB 각 #0~순으로 투자자간등급 구분) \*본 상품은 수익률은 일금 시효기간 고사하는 위험수익률이 적용되며, 실제 수익률은 시장금리상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MA 인감은 발행일에 투자합니다.

KB증권

# 서울 지하철 내달 9일 총파업 돌입...노조 "인력감축 철회해야"

## 파업 예고 기자회견...사측 "인력감축 불가피" vs 노조 "시민안전 위협"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파업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력 감축 계획과 관련 "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오세훈 시장은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해놓고 그 합의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할 것"이라며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또 노조는 지난 12~1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사 양측은 특히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런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천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달한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 중이다. 다만 연합교섭단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할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협정에 따른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53.5%(1호선)에서 79.8%(5~8호선)까지 유지된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한편 'MZ세대'가 주축으로 알려진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다.

/ 신지호 기자



취재진 질문 받는 이재명 대표

## 野, '李수사' 수원지검 2차장 비리 의혹으로 공수처 고발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을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이 차장검사에 대한 의혹 문제를 논의했고 공수처 고발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원고검과 대검에 엄중한 감찰을 촉구하고 법률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정

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며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한편, 박 대변인은 검찰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을 두고선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쫓개기 기소"라며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무능·무법한 행태가 드러났는데도 치졸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결국 검찰의 국면 전환용 공작 수사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 박병준 기자

## '경찰의 날' 기념식...윤희근 "흉악범죄 강력히 대응"

### '치안현장 중심 조직 재편' 강조...청와대 영빈관 개최는 처음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모습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경찰의 날(10월21일)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일상, 경찰의 영예로운 사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 내빈과 올해의 경찰영웅 및 순직 경찰유가족, 치안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전국 경찰관들과 신입 교육생들이 참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중 2차 사고로 입은 부상을 이겨내고 27년간 소외 계층을 위해 선행 중인 이광덕 경위와 올해 초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심

폐소생술로 구조한 김도연 순경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흥기 난동 현장에서 테이저건으로 피의자를 제압한 박종근 경장, 6천610명으로부터 1천100억원을 유사 수신했던 범죄조직을 검거한 강정민 경감 등 현장 경찰관 7명이 대표로 애국가를 제창했다.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순서에서는 6·25전쟁 당시 총 62회의 전투를 지휘·참전해 일명 '지리산 귀신'으로 불린 고

(故) 강삼수 경위, 2015년 경기도 화성시 총기사건 현장에서 범인 설득을 시도하다 총격을 당해 순직한 고(故) 이강석 경정, 2020년 폭우로 높아진 의암호에서 전복된 민간 고무보트의 탑승자를 구조하던 중 순직한 고(故) 이종우 경감에 대한 현양이 진행됐다.

이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기남부경찰청 김철문 경무관을 비롯해 총 48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뜨겁고 더럽혀진 제복, 땀에 젖은 제복, 주인이 찾아가지 못한 제복 등을 통해 표현한 주제 영상이 상영됐다. 국립경찰교향악단과 다양한 세대의 국민, 경찰관이 함께한 합창 공연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경찰의 날을 포함한 경찰주간(16~22일)에 국제경찰청장회의, 국제치안산업 대전, 국제 과학수사(CSI)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사랑의 릴레이 현형, 경찰 추모주간 등 이벤트도 추진한다.

경찰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빈관은 기존 청와대에서 외빈 접견 등 국가 주요 행사가 열렸던 건물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 위상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송원기 기자

## 게임·도박·마약 다 따로따로...국내 중독 치료, 철저히 분절

국내 중독 치료 체계가 너무 분절돼있어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계성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장(인천 참사랑병원 중독치료재활센터장)은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중독 정신건강 정책토론회에서 '마약류 치료·재활 체계 확립을 위한 키워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협회장은 "중독은 한 가지만 가진 경우가 드물다"며 "마약 사용자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과 게임을 하다가 다시 또 마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도박은 문화체육관광부, 마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국내 중독 치료 재활 예방 체계는 철저히 나뉘어 있다"며 "중독자 한 명을 치료하려면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는 랩 아라운드 케어(wrap around care)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약은 전염병과 만성화가 두드러져 국내에서 10대, 20대에서의 마약 사용자가 들쭉날쭉 번지고 있다"며 "그런데 마약 사용자에게 낙인과 차별이 가해져 병의 만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 양희진 기자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월 6,900원



월 13,500원



월 4,900원



월 900원

※ 최저가 비교기준: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계류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 이태원참사 유족 “尹대통령, 1주기 추모식 참석해 위로해주길”



구호 외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유족을 위로해달라고 호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유가족들을 만나 눈물 한 번 닦아주거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한마디 한 적 없지만 오는 29일 열리

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을 정중하게 초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추모제를 주최하지 못한다면 시민추모대회 자리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 영전에 꽃 한송이 올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유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국회와 여당에 협조를 당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참사 1주기를 29일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민추모대회를 연다.

/ 정희찬 기자



감염병 예방관리 아카데미

## 내일부터 코로나19 동절기 집중 “독감 백신과 동시접종 하세요”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19일 시작된다.

날이 추워지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특히 고위험군은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송준영 고려대 의과대학 구로병원 교수는 최근 열린 감염병 예방관리 아카데미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맞았을 때 면역 간섭 현상은 없었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되면 코로나19 단독 감염의 경우보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감염의 위험도가 2.3배, 중환자실 입원 기율이 2.1배 높다고 보고된다”며 “특히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함께 감염되면 이런 중증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에 나선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동절기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 65세 이상 어르신 ▲ 12~64세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임원·입소자,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 국민은 원하면 맞을 수 있다.

이번 접종은 이전 접종 이력과 관계 없이 기간 안에 1회만 맞으면 된다.

송 교수는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코로나19 복합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재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면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다시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 민효주 기자

##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1.6명 뿐...“개인과외 수준” 로스쿨의 1/4...이종성 “교원, 충분히 활용안돼...더 많은 후학 양성해야”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가 2명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원수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인 셈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의과대학 재직 전임 교원은 1만1천502명, 학생 수는 1만8천348명이었다. 전임교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학생수는 평균 1.6명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교원 대비 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이라며 ‘의대 내

교육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학생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율은 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이 특히 적었는데, 이 중 인제대와 가톨릭대를 제외하고는 임학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의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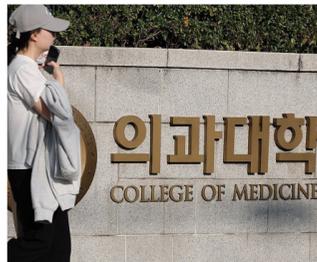
울산대 의대의 경우 학생수가 240명인데 전임교원이 650명이나 돼 학생수보다 2배 이상 오히려 많았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의대의 전임교

원 당 학생수 비율은 특히 낮은 편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우 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평균 7.6명으로 의대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약대도 전임교원이 대학원 소속인 곳을 제외한 35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4.9명으로 의대와 차이가 컸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핵심 논리 중 하나



로 내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의대 교원은 최소 10년 이상 훈련을 거쳐 양성된 교육 자원”이라며 “필수 의료 위기 등으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한 시점인데, 의대 내 교육자원이 더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현욱 기자

## 해수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화물 안전수송 논의 “운항 선박 모니터링 강화...유사시 비상점검반 운영해 대체 항만 확보”

해수수산부는 18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어 국제선사와 선원의 안전과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을 논의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 HMM, 장금상선, 고려해운, 대한해운, SK해운, KSS해운, 팬오션 등 10개 주요 국제선사가 참석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이스라엘 인근을 기항하는 국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과 수출입 화물 수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 결과 이번 사태가 단기간으로 국제선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략물자 수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선박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인근

해역에 진입할 때 경보 발생 조치를 하고 입항 예정 선박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시에는 해수부 주관으로 해운협회 등과 에너지수송 비상점검반을 운영해 대체 항만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찬수 기자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 ‘폭행사망’ 윤일병 유족 “인권위가 사인은폐 진상규명 진정각하”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육군의 사인은폐 의혹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이 최근 각하됐다며 이는 자신들에 대한 ‘보복성 각하’라고 18일 주장했다.

유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 씨는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진정인 조사를 받았고 김용운 군인권보호관과도 면담했는데, 갑자기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진정이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이는 김 보호관이 공적 권한을 휘둘러 유족에 양감유하는 것”이라며 “김 보호관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인권위를 향의 방문했는데, 이후 정상적으로 조사하던 우리 사건을 각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김 보호관은 윤 일병 유가족이 자신을 비판하자 진정 사건을 각하해 보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직자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양감유하는 것은 심각한 공직 기강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의 방문하려고 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윤 일병은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했는데, 육군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만두를 먹다가 목이 막혀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윤 일병 사망 직후 육군이 부검의를 앞세워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조작하고 군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 죄명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했다며 수년간 은폐 의혹을 제기해왔다.

/ 서중익 기자



# “너 보이스피싱범 맞네” 새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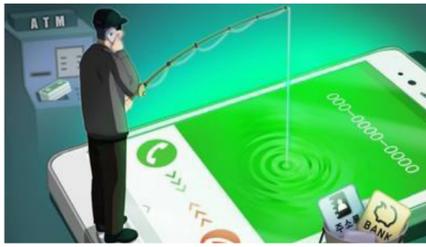
## 행안부, 세계 최초 개발...기존 해외 모델보다 77% 성능 향상

행안부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투입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 음성분석 모델은 일선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돼 전국 수사 경찰관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음성 감정이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야 했다. 결과 회신까지 통상 2~3주가 걸려 영장 신청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 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범죄자 특정과 영장 신청, 검거 등 보다 빠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사용하게 되는 음성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일대일(1:1)로 비교해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이다.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했던 기존 음성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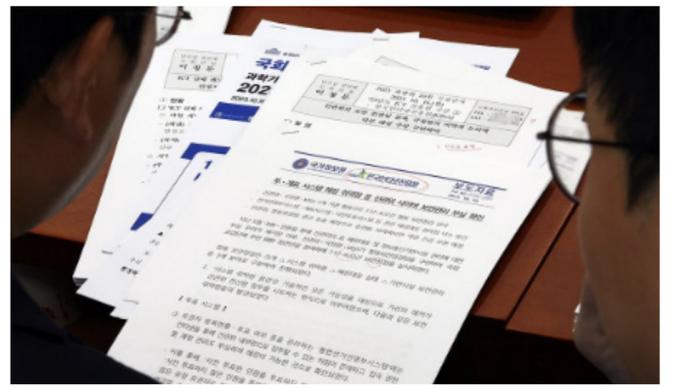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과수는 올해 2월 말부터 9월까지 음성분석 모델을 이용해 78건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음성감정을 실시해 경찰 수사 등에 결과를 제공했다.

행안부는 현장 수사관들이 음성분석 모델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국과수와 함께 실무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며 “관계기관과 데이터 분석,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송진영 기자



선관위 관련 국정원 보도자료

# 국정원 “보안점검 관련 ‘관련 선거 의혹’, 사실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를 두고 야권 등에서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관련선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8일 반박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보안점검은 선관위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점검 과정에 여야 참관인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점검 결과 발표를 KISA와 조율 없이 강행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보도자료 배포 계획에 대해 KISA 측에 사전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KISA는 지난달 13일 ‘선관위 대상 최종 결과 설명회’에 참여했으며 기자간담회 당일에도 직원이 배석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3개 기관 합동 보안점검의 목적이 북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술적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을 보호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인사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 등을 거론하며 “주요 선거 때마다 저질렀던 선거 개입의 명령이 국정원에 다시 드리워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는 (중략)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이형철 기자

# 민화협 간부, ‘소금지원사업’ 보조금 수천만원 北측에 전달 정황

## 경찰, 간부 엄모씨 구속 수사...“보조금 소금구매에 사용된 적 없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민화협 간부가 보조금 가운데 수천만원을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19년 민화협의 소금지원 사업을 총괄한 대외협력팀장 엄모 씨가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총 20만원(약 3천700만원)을 건넨 내



역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엄씨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

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엄씨가 소금지원 사업을 비롯한 대북 사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지원단체인 민화협은 2019년 전라남도에서 보조금 5억원을 받고 민간 업체에 위탁해 북한에 소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였던 엄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

화협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초기에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화협은 위탁업체 대표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소금 소재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위탁업체 간부와 엄씨, 민화협을 인건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보조금이 소금 구매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횡령액은 4억7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 서정민 기자

# 40대 성범죄자 괴산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공개 수배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4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A(46)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A씨는 전자발찌 훼손 직후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이동하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도 A씨를 공개수배하고 제보(☎042-280-1294)를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는 키 170cm·몸무게 90kg으로 뚱뚱한 체형에 두상이 크며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 검은색 빨데 안경을 착용하고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다.

문신은 없으며 걸음걸이는 약간의 팔자걸음이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를 목격한 시민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수현 기자

# 만취 운전 30대, 광주 지하철 공사장 울타리 들이받아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 중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은 그는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 황순길 기자

# 돼지머리에 5만원 꽃아도 ‘기부행위’

## 법원, 전 조합장에 벌금형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꽃는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농협 조합장에 재직 중 이던 2020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해당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꽃은 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남유정 기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 경기도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기회UP 특례보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

대출금리

**-2%p 지원**

대출기간

**8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스마트폰으로 **이지원(Easy One)** 앱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 1577-5900

**이지원**  
(Easy One)

QR코드를 찍어주세요

# 일본 국회의원 96명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 기시다 총리는 어제 총리 명의로 공물 봉납...각료는 3명이 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 약 100명이 18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96명은 추계 예대제(例大祭·祭) 이틀째인 이날 오전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고 통신이 모임 사무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96명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여야와 무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모임의 야스쿠니 집단 참배는 패전일인 8월 15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모임의 아이사와 이치로 부회장(자민당)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평화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해가는 것은 우리의 큰 사명"이라고 말했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추계 예대제(例大祭·祭) 이틀째인 18일 오전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하기 위해 가고 있다.

그는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서는 "(전쟁 희생자에 대해) 존중(尊崇)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이 모임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 참배를 자제하다가 2년 2개월 만인 2021년 12월 재개한 이후 춘계 및 추계 예대제 때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찾고 있다. 추계 예대제 첫날인 전날에는 기시다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

의로 '마사카기'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춘계·추계 예대제에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해 오고 있다.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 기시다 내각 각료 3명은 추계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공물 봉납과 참배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정희수 기자



1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폭스콘의 '테크 데이'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쟈슨 황(왼쪽) CEO와 폭스콘의 류양웨이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 대만 전자제품 제조사, 폭스콘·엔비디아 "자율주행 전기차 위한 'AI 공장' 설립"

대만 전자제품 제조사 폭스콘은 18일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를 위한 'AI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스콘의 류양웨이 회장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폭스콘의 연례 '테크 데이' 행사에서 쟈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무대에 올라 엔비디아의 칩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AI 데이터 공장을 구축해 자율주행 전기차 등의 제품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CEO는 손으로 그린 해당 공장의 스케치를 보여주면서 이를 'AI 공장'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 공장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를 생산해낸다"며 "향후 모든 회사, 모든 산업이 AI 공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폭스콘이 구축하는 것은 자율주행 전기를 위한 처음부

터 끝까지의 전체 AI 시스템이라며, AI 공장이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주행 전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AI 공장에 전달되고 AI 공장은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전체 AI 합대를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한쪽 끝에는 AI 공장, 다른 쪽 끝에는 전기차 합대가 놓인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엔비디아와 폭스콘이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챗GPT로 촉발된 세계적인 AI 붐 속에 지난 6월 시가총액 1조달러(약 1천350조원) 기업 대열에 올라섰다. 이 회사는 세계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전기차 시장의 입지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 박정용 기자

## 시진핑 "강대국 역할" 푸틴 "중립 협조 필수"...서로 '친구' 호칭 베이징서 올해 두 번째 중립 정상회담...확전기로 '아.팔 전쟁' 입장 주목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중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국제현안 관련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열렸다. 시 주석은 정상포럼 개막식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립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 지칭한 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는 푸틴 대통령을 42차례 만나 좋은 업무관계와 깊은 우의를 쌓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역사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계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기를 바란다"며 "시종일관 양국 국민의 근본이익에 기초해 양국 협력의 시대적 내용을 끊임없이 충실하게 하고, 강대국의 역할을 구현해 양국의 발전

과 국제적 공평·정의 수호, 세계 공동 발전에 힘을 보태기를 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끊임없이 깊어져 왔고, 전략적 협력은 밀접하고 유효했다"면서 "양자 무역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우리가 공동으로 설정한 2천억달러(약 270조원)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 부르며 우의를 과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긴밀한 외교 정책 협조는 특히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촉발된 최근 '신냉전' 국제정세 속에서 밀착 행보를 보여 온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태 해결을 위

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모스크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실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베이징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문제는 모든 세계 지도자에게 관심이 큰 주제"라고 언급하며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친(親)이스라엘 행보를 보인 미국 등 대부분 서방 국가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중국은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은 이후 진행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보복 공습에 대해 "자위(自衛)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두 국가 방안'(兩國方案)을 기초로 평화 협상을 재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양측에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즉각적인 휴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3일 유엔 안보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사흘 뒤 부결됐다. 러시아 결의안에는 인질 석방, 인도주의적 지원 접근,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모든 테러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하마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장쑤 중국주(駐)유엔대사는 "인도적 문제는 정치화돼선 안 된다"며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막대한 유감을 느낀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은 공교롭게도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길에 올라 이번 전쟁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 점에서 국제사회 이목이 더 집중됐다.

/ 강순철 기자

## 말레이시아 공무원·외교관 대상 한국어 강좌 개설

말레이시아 공무원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과 한국교육원은 말레이시아 외교부 산하 기관인 외교국제관계연구원에 한국어 과정이 마련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초임 외교관 대상 연수 과정에 한국어 수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관련 수업도 진행된다.

한국어 강좌는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동방정책은 말레이시아가 198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정책을 배우기 위해 펼친 활동을 말한다.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사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분야를 다



루는 공무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노승만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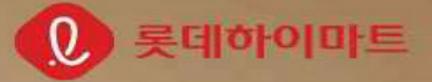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개발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특정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인 **ECO Alliance**

We Do Technology | SK hynix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가까운 롯데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 하이메이드를 만나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상품”

하이메이드  
FHD TV(100cm)  
HMDT40C2FB  
믿을 수 있는 국내 제조 TV  
최종  
판매가 349,000원



하이메이드  
안마의자  
HM-8661B  
12가지 자동모드  
3D 안마의자  
최종  
판매가 1,990,000원



하이메이드  
무선 진동 마사지기  
HMG-JE3000P  
5가지 강도조절 가능  
4D 안마의자  
최종  
판매가 99,000원



하이메이드  
안마의자 리프  
HM-X6000(G)  
24가지 자동모드  
4D 안마의자  
최종  
판매가 4,280,000원

하이메이드  
식물건조기(5단)  
HFD-LQ530W  
국내 제조  
5단 온풍 대류형 식물 건조기  
최종  
판매가 109,000원



하이메이드  
대형 잔치팬(53cm)  
HEP-DN530B  
국내 제조  
4중 코팅 뚜껑형 잔치팬  
최종  
판매가 69,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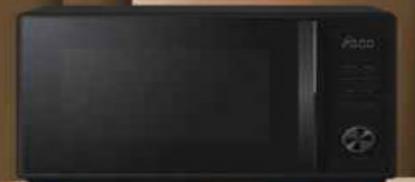
하이메이드  
대용량 믹서(3L)  
HBL-HC300BE  
국내 제조 대형 믹서  
포스코 스테인리스 용기  
최종  
판매가 109,000원



하이메이드  
대형 그릴(55cm)  
HEG-DN550B  
국내 제조  
플판 코팅 고기 그릴  
최종  
판매가 69,900원



하이메이드  
IH 입력밥솥(10인용)  
CRF-LUF1080HM  
하이메이드 X 쿠쿠 클리보  
최종  
판매가 259,000원



하이메이드  
고효율 전자레인지(25L)  
HMW-ME25B  
25L 대용량, 800W 고출력  
최종  
판매가 109,000원

HIMADE Made by 롯데하이마트

\* 원사가 가격은 당사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ADEX 2023] KAI·록히드마틴, 특수작전용 대형헬기사업 '맞손'

## 3조7천억원 규모 사업 추진 협력체계 마련 협력의향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한국군의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AI와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는 1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의 록히드마틴 부스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잠재적 사업 영역 발굴·협력을 위한 상호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국내 시장에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추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우래 KAI 상무는 "이번 협력을 통해



KAI·록히드마틴 사업 발굴 상호 협력 의향서(LOI) 서명

미국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사와 국내 과를 높여주겠다"고 말했다.

사업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도, "향후 다양한 미래 사업 협력 기회

를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의 다나 피아타론 해병대 시스템 부사장은 "KAI와 함께 한국군에 향후 30년 동안 높은 효율성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헬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3조7천억원을 들여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수십대를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킹 스타리온'으로 불리는 록히드마틴의 다목적 대형 헬기인 CH-53K과 보잉의 CH-47F 치누크 헬기가 결합할 것으로 전망한다.

/ 김희성 기자



##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인당 13만원 돌려받아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은 실제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 할인(환급) 혜택을 받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에 따른 환급액은 1조1천53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18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특약을 판매 중이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셈이다.

2011년부터 도입된 주행거리 특약 가입 자동차 대수와 가입률은 2019년 말 1천26만1천대(61.9%), 2020년 말 1천156만4천대(67.5%), 2021년 말 1천254만6천

대(71.3%)에 이어 지난해 말 1천431만5천대(79.5%)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는 1조1천534억원으로 전년(1조503억원) 대비 9.8% 증가했다. 환급액은 보험사의 특약 할인을 확대, 코로나19 기간 차량 운행 감소 등으로 2018년 4천954억원, 2019년 6천411억원, 2020년 8천198억원에 이어 2021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0명 중 약 7명이 할인요건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0년 11만2천원, 2021년 12만8천원, 2022년 13만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행거리 확인 방식은 주로 계기판이나 차량번호 등의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플러그인 장치, 커넥티드카 등의 도입으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졌다.

/ 권정석 기자

## KB국민은행, 부산서 'KB굿잡 취업박람회' 열어

### 이재근 행장 "일자리 창출 기업에 채용지원금·금리우대 혜택"



KB국민은행은 1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와 함께 '제24회 KB굿잡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행사는 민간 주최 취업박람회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2011년 이후 5천100여 기업이 참가해 9만1천여건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생 3만5천여명과 기업이 연결됐다. 올해 취업박람회에도 200여개 기업의 관계자와 취업 준비생, 박형준 부산광역시시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연아

KB홍보모델 등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행사 참여 기업에 채용 정규 직원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1천만원의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최대 1.3%포인트(p)의 금리우대 혜택도 줄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 300명(선착순)에게는 면접 지원금 1만 원을 현장에서 지급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시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잡 페스티벌이 민·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재일 기자

## 이동관 "YTN 매각,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고려"

### EBS 보궐이사에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임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YTN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강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의견과 자본 때문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는 YTN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전KDN·한국마사회



관련 법령에 따라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 보호 ▲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YTN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인 YTN 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회의 결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가에서 YTN 지분 인수자로 동국제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EBS 보궐이사에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을 임명했다.

임기 만료일은 내년 9월 14일이다.

신 신임 이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 권경준 기자

##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 앱으로

### 열차 승차권 예매하세요

앞으로 토스,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 등의 앱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열차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코레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이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서 제공 중인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다양한 민간 앱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에스알도 지난 6월부터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올해 안에 토스, 신한플레이, KB스타뱅킹 앱으로 예매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 분야 서비스의 신청, 예약, 조회 등을 민간에 개방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기존 코레일, SR 각각의 앱으로 들어가 승차권을 예매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최병훈 기자

예컨대 수서역에서 충주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존에는 SR 앱을 통해 SRT 승차권(수서역→오송역)을 구매한 뒤 코레일 앱에서 무궁화호 승차권(오송역→충주역)을 예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앱으로 두 개의 승차권을 모두 예매할 수 있게 된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민간 앱을 통한 열차 승차권 예매로 기업은 자사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고, 국민은 승차권을 편리하게 예매하는 동시에 기업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병훈 기자



금융 사각지대에 관심을 더하고  
편리한 금융이 되고자 혁신을 더하고  
고객 일상이 행복하도록 안심을 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화손해보험의+는 계속됩니다

기고

# 천년바위 그러하고 제 아무리 문명의 발달 막강한 힘

인류사회가 오랜 시간 만물의 영장으로 위치를 영위할 수 있는 건 인간 스스로의 생각 일뿐 다른 분야에서는 그리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천년바위가 그러하고 제 아무리 문명의 발달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하지만 어렵사리 쌓아놓은 문명도 인간들 스스로의 전쟁과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걸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한때 번성했던 해저도시 아틀란티스도 그러했고 고대 로마의 빛나는 문명도 그러했으며 한반도만 하더라도 6·25전쟁과 일제강점기 이전에 찬란했던 문화가 초토화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70억 명으로 늘어나기까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과정에 임신과 출산과 질서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삶의 가치를 고민했던 흔적들은 각 민족의 풍습이나 문화가 특색있게 성장했기에 지금의 국가별 종교, 경제, 문화예술, 복지 등 분야별 성장도 이뤄졌던 것이다.

그 중 출산은 각자의 생일, 즉 태어난 날이지만 성장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때가 되면 저승길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 순서였다. 여기서 인류의 공통적인 큰 행사를 우리민족은 '인류지대사'라 하는데 대표적인 행사가 결혼식이고 다음이 장례식이다.

과거에는 마당에 천막을 치고 술단지 걸어 소머리도 삶고 전을 부치는가하면 일가친척과 동네사람들이 한바탕 잔치로 치러왔는데 지금은 웨딩뷔페라는 영어로 지칭된 결혼식장이 연탄공장에서 연탄 짝어내듯 1시간에 한 쌍 꼴로 처녀·총각을 아저씨·아줌마로 만들어 낸다.

뻘한 식순에 식상한 이벤트는 이제 주인공인 신랑·신부보다 하객들이 더 선수를 친다. 일부 하객들은 일찌감치 피로연 장소에서 모니터를 통해 식사를 하며 지켜보는가 하면 식사보다 담례품과 주차권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

축의금 봉투와 화환의 진열숫자에 따라 외부에 보여주는 당사자의 뿌듯함이 더해지니 이제 막 결혼할 나이에 잘 나면 얼마나 잘 낫을까. 실제 결혼식은 부모님의 사회적 현주소고 부모님의 장례식은 자식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사로 치러진다.

결혼 대비 이혼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재혼식 또한 만만찮은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 장례식 또한 마찬가지다. 상조회사의 범람으로 대부분 장례식장은 알짜배기 실속은 진즉 배제된 상태다.

소위 돈 될만한 제단의 조화나 수의 등 장례용품이나 발인에 이어지는 운구차량, 장지에 도착하기까지 고인의 집이나 사업체를 돌아다니면 일명 '뽕방'을 뜬 일도 이제는 먹이지 않을뿐더러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리베이트도 거품

가치를 소외시 한다면 결국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이나 국가 기념일도 기피하는 종점에 도달할 것이다. 각자가 아파트 문 안에서 배달시켜 먹고 자고 배설하며 소통은 온라인으로 하고 정의 실종에 대한 감각마저도 무디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쯤에서 우리는 변화에 대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 나라의 문화와 풍습, 역사가 통째로 변질되는 과정에는 각 개인이 느끼지 못하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 때로는 힘들어도 출산장려와 민족의 찬란하고 독창적인 문화는 유지해야 한다.

특히 결혼과 장례 문화가 이대로라면 제 아무리 군사, 경제가 발달한다해도 그 나라는 통제상 우수할 뿐, 진정한 삶의 가치는 사라진 채 얼마 못가 해저도시 아틀란티스처럼 전설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 미래를 안다면 그 대책을 현실에서 세우지 않은 자, 목시적 침묵으로 방관하면 공범이 된다

이 빠진 상태다.

이러다 보니 결혼식도 장례식도 점차 하객이나 조문객들이 줄어들고 그나마 지금은 기본적인 문상절차라도 있지 향후 20년은커녕 10년만 지나도 인류지대사는 온라인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편리할까.

물론 쓸데없는 허례허식에 실속을 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람 구실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실종될 것이다. 이제 출산율의 저하는 사회적 풍습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형제·자매가 있어야 친척이 있을진대 정이 실종된 사회에서 남까지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이 모여 사는 걸 사회라 하는데 편리함만 찾고 진정한

대안을 찾아보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도로·항만·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도 마련하고 미사일에 첨단 무기 개발로 국방력도 갖추어야 한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추락하는 교육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복지라는 허울 속에 밑 빠진 독의 물을 붓는 것도 필요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김정은 헛기침에 정책이 뒤집히는 통일부는 국방부의 일개 부서로 귀속시키고 오보 비율이 높은 기상청은 민간시장을 개방하여 전국의 각 도나 광역시마다 개별적인 예보를 통해 다양한 채널의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김대호 (논설위원 / 세무사)

그리고 예보의 정확도에 따라 살아남고 사라지는 시장논리도 적용하여 귀한 세금이 적시적소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국민윤리부를 신설하여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는 국가가 재정도 지원하고 법률적 조항도 정하여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해야 한다.

아이·어른이 구분 되어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하며 축복 관련 법안도 개정하여 죄에 대해 연명이 면죄부를 주는 부작용도 개정의 여지를 가져야 한다.

가령 미성년자를 고용, 훈련시켜 중대 범죄나 성매매의 도구로 사용한다해도 당사자의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비합법적 현상을 제한해야 한다.

1990년대 많은 사람들은 노동운동을 한담시고 민중가요를 외치던 시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유행하던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일 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며 소리치던 당시의 논리는 어렵사리 공장이나 기업을 운영하던 사주에게 치명적인 반항의 전주곡이었다.

같은 목소리라도 적용하기에 따라 다르고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다. 지금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결혼, 출산, 근로의욕, 그리고 위·아래도 없이 막 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래를 안다면 그 대책을 현실에서 세우지 않은 자, 목시적 침묵으로 방관하면 공범이 된다.



#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

# 오세훈 “안보가 국민행복 근원…위협요소 점검해 철저 대비”

## 서울안보대화 환영사…한반도 긴장 속 국제 협력·연대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방부가 주최한 다자 안보 회의체 ‘2023 서울안보대화’(SDD) 둘째 날인 18일 “서울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최에서 영상 환영사를 통해 “최근 중동의 오랜 화약고가 터지면서 세계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서울안보대화에서 자유·평화·번영을 향한 협력과 연대를 대주제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역할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각종 위협 요인이 돌출하는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안보 역량과 확고한 준비태세 수립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오 시장은 오늘날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는 어느 한 국가만의 의지와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짚으면서 “서울시도 안보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안보대회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차를 맞은 올해 안보

대회에는 56개국 2개 국제기구에서 안보 관련 인사 8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자유 평화 번영을 향한 협력과 연대’를 주제로 논의한다.

본회의에선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다룬다. 우크라이나 전쟁·주요국 간의 전략적 경쟁·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 이윤성 기자



부산 목욕탕 화재 진화

## 화재로 23명 다친 부산 목욕탕에 허가받지 않은 기름 보관

지난달 발생한 23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목욕탕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소방본부와 경찰의 화재 합동 감시 결과 동구 목욕탕 화재 사고는 지하 1층 기름탱크에서 2차례 폭발을 동반하며 발생했다.

1차 폭발은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기체형태의 기름 방울)가 원인을 할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화원은 전기적 요인, 불꽃 등 다양하게 추정되나 정확한 요인은 찾지 못했다. 2차 폭발은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 탱크 배관 안으로 점화원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은 목욕탕 업주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유류를 탱크실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했

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폭발 현장에서 검출된 시료는 업주가 허가받은 경우와 인화점에서 차이가 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저품질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쳤다.

소방은 이 화재를 계기로 지역 목욕탕 위험물 허가시설 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5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이 중 1명을 입건하고, 51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 이순철 기자

## 홍준표 “TK신공항건설사업 LH 참여 없이 추진 검토”

### 간부회의 언급…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대책 마련도 지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대구경북신공항건설을 주관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문제와 관련, “LH를 배제하고 타 공공기관과 메이저 건설사를 중심으로 SPC를 구성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산적경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표적인 정부 산하기관인 LH가 TK신공항 건설 참여 여부를 두고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대구시를 이용해 경영 개선을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LH 이한준 사장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신공항건설사업 참여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부채비율 등을 언급하면서 “재무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의 100년 국책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폄하하는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참여의 목적은 사업의 대외 신인도 증대를 위

함인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실사업의 대명사가 된 LH가 SPC에 참여하는 것이 사업 신인도 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도 해보지 않고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를 통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신공항 사업은 국내 최고 회계법인에서 내부 수익률(IRR)이 12.3%나 나오고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신공항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무책임하고 경박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홍 시장은 “화물터미널 문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의성군 간의 문제”라면서 “공항건설단에서는 4개 기관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 불가 시 컨틴전시 플랜을 11월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홍 시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와 관련, “1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앙로 복원도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소통 모니터링을 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 배윤호 기자

## 정읍 소 힘겨루기 대회 내년 예산 미편성…폐지 수순



1990년대 후반부터 열린 전북 정읍시 소 힘겨루기 대회(소싸움 대회)가 동물복지 실현이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읍시는 오는 11월 소 힘겨루기 대회를 열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내달 9~13일 정읍 임산물체합단지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읍에서는 1996년 소싸움 대회가 처음 개최됐다. 2003년에

는 정부가 지칭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만큼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후 소싸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동물 학대’란 주장과 ‘전통문화’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정읍시는 2017년 4억4천여만원, 2018년 3억7천여만원, 2019년 2억2천여만원, 2020년 1억4천여만원을 편성했다. 구제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회가 4년간 열리지 않았고 올해는 2억8천500여만원이 책정됐다.

그간 정읍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소싸움 대회가 1996년부터 22회에 걸쳐 개최된 정읍시에서는 이제 소싸움에 대한 ‘동물 학대나 민속놀이’라는 갈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의제가 됐다”며 “이제 소싸움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4년간 대회가 열리지 않아 싸움소 농가가 많이 줄었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홍지민 기자

## “강력범죄로부터 이주여성 보호할 사회적 안정망 구축해야”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진주에서 남편이 이주여성 살해 시도”

경남 여성단체가 강력범죄로부터 이주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는 18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극단적 폭력이 계속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진주에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여성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뇌 손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며 “이처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후인미아라는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입국해 2개월 만에 남편에게 맞아 사망한 뒤 이주여성이 겪는 극단적 폭력은 계속 터졌다”며 “양산에서도 2014년과 2018년 한국인 남편에 의해 이주여성이 살해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두 사람을 한집에 살게 하는 게 국제결혼의 완성인 것처럼 규정하는 정책들이 파국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기자회견

이들은 “이주여성들은 안전하리라 믿었던 가정에서 가장 극단적 폭력의 피해자가 돼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여성이 존엄한 존재로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송진영 기자

계획에 없던 질병, 사고에도  
당신을 지켜주는  
현대해상

당신 인생에 꼭 필요한 플랜

마음이 ♥ 합니다 H 현대해상



애들아! 너흰  
어리사니?

드론이랑  
로봇이  
일하는 곳이에요!

SNS  
하플해요!

은행도 병원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신뢰한 에너지로  
동네가  
깨끗한 곳이에요!

농촌카페

NH Bank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미래의 농촌  
당신과 농협이 함께 만듭니다

# 100년 농촌 100년 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고  
담례품은 꼭 우리 농축산물로!

신청방법 : 고향사랑기부금 홈페이지 및 농협은행 전지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농협중앙회

- 농협정보시스템
- 농협자산관리회사
- 농협네트웍스
- 농협파트너스

### 농협경제지주

- 농협하나로유통
- 농협유통
- 남해화학
- 농협케이엘

- 농우바이오
- 농협아그로
- 농협투사람
- 농협홍삼

- 농협양곡
- 농협식품
- NH농협무역
- 농협물류

- 삼림
- 농협사료
- 농협목우촌
- 농협티엠알

### NH농협금융지주

- NH농협은행
- NH농협생명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NH투자증권

- NH-Amundi자산운용
- NH농협캐피탈
- NH저축은행
- NH농협리츠운용

- NH벤처투자
- NH선물
- NH헤지자산운용

# 강기정 광주시장 “매수할 기업 나타나면 광주FC 팔 것”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적당한 기업이 있다면 광주FC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날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광주FC 재정 지원, 전용 구장 실태 등을 물었다.

채 의원은 “광주FC를 관광문화산업과 연계해 시민 참여를 더 활성화하고 광주의 컬러 콘텐츠로 키울 것이냐, 시민 구단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광주FC를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당장 팔 것이냐”며 선택을 요구했다.

시민 구단 광주FC 구단주인 강 시장은 “(활성화와 매각 검토) 둘 다 하고 있다”며 “관광공사와 시 문화콘텐츠 부서에 주문해 스포츠 관광을 고민하고 있다. 가령



광주FC 1호 시즌권 구매

야구를 보러 3박 4일씩 캠핑언스필드에 오는 외지 야구팬 등 광주로 오는 응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관광 마케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두 번째 선택안(매각)에 대해서는 “재정 등 시민 구단의 한계가 있

다”고 말했다.

또, “선수들의 연봉 문제, 잘하는 선수들을 응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기업이 나타난다면 당장이 아니라 진작 팔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단을 위해서 기업이 나타나면 팔겠다는 것이냐”는 채 의원 질문에 강 시장은 “나타나면 팔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기업이 있는지 찾고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홈 경기를 빼놓지 않고 챙겨보는 축구 팬으로 알려졌다.

광주FC는 올해 100억원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대표 이사 이름으로 은행권에 24억원을 추가로 차입했다.

/ 차명석 기자



식발하는 소병철 의원

## 野 전남 의원, 지역 의대 신설 촉구 소병철은 삭발 호소

###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 의대 유치 촉구 집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은 18일 기자회견과 삭발, 대통령실 앞 집회 등을 통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원익·김희재·소병철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사를 늘리려는 정책 목표는 분명하다”며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에 절대 부족한 의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수”라며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한들, 전남권 의대 신설 없이는 전남의 부족한 의사 인력

을 확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역민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고,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의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지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남 지역에 의과 대학이 신설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회견 직후 소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30년간 전남도민과 순천시민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많은 목숨과 생명을 잃었다”며 “이 순간 저는 제 두발을 바쳤지만, 전남도민과 순천시민을 위해 온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남도의회 의원과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 강호준 기자

## 거창구치소 착공 6년 만에 개청...한동훈 “민주주의 가치 보여줘”



거창구치소 개청식 참석한 한동훈

설립을 두고 주민 갈등을 겪은 거창구치소가 착공 6년 만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청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18일 거창읍 거창구치소에서

사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축사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고 살아갈 터전이라 양보와 타협이 어렵기 때문에 교정시설 설치의 법무부 일 중 가장 힘들 수 있다”며 “그러나 거창은 달랐고 오늘 개청하게 돼 모두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 수단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와 통합의 배려가 필수”라며 “오늘 개청은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창법조타운 조성 등 거창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한 장관은 “구치소를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민들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하게 하겠다”며 “부대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창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치소를 개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공직자라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거창구치소를 비롯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비 1천310억원을 투입해 거창읍 일원 16만818㎡에 거창구치소 관련 시설, 준법지원센터, 거창지원, 거창지청 등 총 15개의 건물물을 설립하는 것이다.

/ 임복현 기자

## 용인시, 통학차량 ‘승하차 베이’ 추진...희망 학교 전수조사

경기 용인시는 초·중·고교에 통학용 차량 승하차 베이를 설치하기로 하고 관내 185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 희망 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 방침은 전남 이상일 시장이 관내 28개 고교 학부모 대표를 만나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주변 교통 체증 방지를 위해 별도의 승하차 베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승하차 베이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한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인도 폭 등을 고려,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등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승하차 베이 설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

이 시장은 “현재 처인구 백봉초교와 용인고교 인근에는 사유지를 활용해 승하차 베이를 설치 중”이라며 “승하차 베이가 등하교 때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인 만큼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간 확보가 가능한 학교를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 황윤철 기자

## 송파구, AI활용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관제시스템은 AI 기반의 딥러닝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사람이나 차량 등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에 포착해 위험·위협 요소가 판단되면 관제요원에게 해당 영상을 표출한다.

시스템이 적용된 CCTV에는 ▲ 사람·

차량 객체 식별 및 동선 추적 ▲ 차량번호 검색 ▲ AI선별관제(실신 등 이상행동 자동 감지)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구는 “관제요원 16명이 24시간 교대로 CCTV 3천515대를 관제해왔다. 상황 발생 시 관제요원들이 CCTV 녹화 화면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즉각 조치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을 통해 관제 공백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먼저 오는 19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석촌호수 산책로 등 CCTV 250대에 시스템 적용을 완료한다. 이후 1천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구는 아울러 재난상황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다중인파 응급복합 분석플랫폼 구축 등으로 대형사고·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 최준호 기자

## 목포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지방·중소도시 종합 1위

전남 목포시는 18일 국토교통부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중소도시 종합 1위인 국무총리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 4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경쟁력을 향상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양산단 분야 성공적 마무리와 원도심 일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상 추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동 등 전반적으로 고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신재일 기자

언공부지 한공부지

# 알아서 잘크는 내 퇴직연금

##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이렇게 바쁜데 퇴직연금까지 관리하라고요?  
전문가가 알아서 잘 키워주는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도, 시간도 벌어드세요

유의사항  
가입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  
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이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연금의 수령시 세  
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대면 계좌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1.5억원 이하 0.15%, 1.5억원 초과 0.10%이며  
자산관리수수료는 0.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717호(2023-03-03 ~ 2024-03-02)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 수출입·외환에도 내 편이 하나 생겼다

전세계 25개 지역 192개 하나은행네트워크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2023년 8월말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6511호(2023.09.18) / CC 브랜드 230908-0117

# 프로야구 PS, NC-두산 WC 결정전으로 시작... '양이지 시리즈'

## 19일 창원서 4위 NC-5위 두산,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2023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가을잔치의 서막을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가 연다. 정규시즌을 4위로 마친 NC와 5위 두산은 19일 오후 6시 30분 창원NC파크에서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을 벌인다. '1승'을 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오른 NC는 1차전에서 승리하거나 비기면 준플레이오프(준PO)행 티켓을 손에 넣는다. 두산이 19일에 승리하면 20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이 열린다. 두산은 2연승을 거둬야 3위로 준PO에 선착한 SSG 랜더스와 맞설 수 있다.



유니폼 바꿔입은 양의지와 박세혁

2015년부터 KBO가 도입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위가 4위를 꺾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8번 모두 '1승'을 안고 시작한 4위 팀이 준PO에 진출했다. NC는 2017년, 2019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다. 정규시즌 4위였던 2017년에는 SSG를 1차전에서 꺾었고, 5위였던 2019년에는 LG 트윈스에 첫 경기를 내주고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다. 두산은 2021년에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 키움 히어로즈에 1차전을 내줬지만, 2차전에서 승리하며 준PO에 올라갔고, 기세를 몰아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했다. NC와 두산이 포스트시즌에서 맞붙는

건 이번이 5번째다. 2015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두산이 3승 2패, 2016년 한국시리즈에서는 두산이 4승, 2017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두산이 3승 1패로 NC를 눌렀다. 하지만, 2020년 한국시리즈에서는 NC가 두산에 4승 2패로 승리하며 창단 첫 통합우승(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3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역 최고 포수 양의지(두산)의 소속팀이다. 양의지는 2020년 NC의 통합우승을 이끌며,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2016년 한국시리즈에서 두산 유니폼을 입고 NC와 상대해 MVP에 오른 양의지는 두 개 팀에서 한국시리

즈 MVP에 오른 '최초의 사건'을 만들었다. 2023년 양의지는 다시 두산 안방을 책임진다. 2006년 두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양의지는 2019년 NC와 4년 125억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했고, 올해 6년(4+2년) 최대 152억원에 두산 복귀를 택했다. 앞게도 양의지는 두산 복귀 후 처음 치르는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NC 선수들과 상대한다. 양의지는 올 시즌 NC전에서 타율 0.349, 2홈런, 5타점으로 활약했다. 양의지가 두산과 계약하자마자 두산을 떠나 NC와 4년 최대 46억원에 FA 계약을 한 포수 박세혁도 이적 후 첫 포스트시즌을 두산과 치른다. 다만 최근 NC 포수 마스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

맥을 캔 김형준이 더 자주 쓰고 있어, 양의지와 박세혁의 포수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 현재 NC에는 박세혁 외에도 외야수 박건우, 마무리 투수 이용찬 등 2016년과 2020년 한국시리즈에서 두산 유니폼을 입고 NC와 맞선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양 팀은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선발로 테너 털리(NC)와 광빈(두산)을 예고했다. NC는 올 시즌 다승(20승), 평균자책점(2.00), 탈삼진(209개) 부문을 휩쓸며 에릭 페디를 16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소진했다.

'2선발' 테너를 내세운 1차전에서 패하면, 송명기가 등판할 2차전에서는 선발 싸움에서 두산에 밀릴 수 있다. 테너는 올 시즌 두산전에 한 차례 등판해 6이닝 7피안타 3실점(1자책) 하며 선발승을 챙겼다. 벼랑 끝 승부를 펼치는 두산은 광빈이 1차전에서 버티야, 브랜든 와델을 2차전 선발로 내세워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사상 처음으로 5위가 4위를 꺾는 '업셋'을 노릴 수 있다. 올해 처음 1군 지휘봉을 잡은 강인권 NC 감독과 이승엽 두산 감독은 '초단기전'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첫 포스트시즌을 치른다. 두 감독 모두 준PO 직행 티켓을 놓친 아쉬움을 총력전으로 털어내고자 한다. / 최준용 기자



달려라 손흥민-이강인

## 손흥민 "팬 분들 앞에서 결장은 용납이 안 돼...3연승 자신감 ↑"

한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4만2천여 관중 앞에서 시원한 득점포를 가동하며 건재를 알렸다. 손흥민은 17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베트남전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다. 13일 튀니지전에는 다리 근육 이상으로 결장했던 손흥민은 베트남전에서는 후반 4-0을 만드는 점수를 올렸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골에는 도움을 기록했다. 경기 도중 손흥민이 베트남 선수와 충돌해 잠시 불편한 표정을 짓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4만2천175명의 팬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캡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장면도 연출됐다. 올해 3월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2골을 넣은 이후 7개월 만에 A매치 골 맛을 본 손흥민은 특히 몇 차례 상대 골키퍼 선방에 걸리지 않았다면 '멀티 골'도 기대할 수 있었던 경기 내용이었다. / 권도훈 기자

는 부분"이라며 "오늘 경기 출전 여부를 고민했는데, 한국에 와서 팬 여러분 앞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감독님과 상의해서 제가 경기에 뛰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훈련에도 많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제 의사를 존중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또 공동취재구역 인터뷰에서는 위트겐 클린스만 감독을 다소 옹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13일 튀니지전에서 이강인과 이재성이 자리를 바꾼 것이 선수들끼리 얘기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이 없었느냐"는 물음에 "그건 너무 안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선수들이 다 능력도 있지만, 좋아하는 위치도 각자 다르고 그날 경기 안 풀리면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며 "감독님이 자유롭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날카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이 튀니지전 2골을 넣은 것에 감독이 관여한 부분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승리로 3연승을 거둔 대표팀은 11월부터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돌입한다. 손흥민은 "3연승으로 선수들 자신감도 올라왔다"며 "첫 승이 늦어질 만큼 앞으로 계속 좋은 경기력,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 이상호 기자

# 사령탑이 꼽은 프로농구 우승 후보 1위 '슈퍼팀' KCC...SK도 강세

## KCC 전창진 감독은 kt 지목...허웅 "부담되지만, 흔치 않은 기회 잡고 싶다"

'호화 라인업'을 자랑하는 부산 KCC가 프로농구 사령탑 사이에서 2023-2024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 중 '우리 팀을 제외한 우승 후보' 질문에 10개 팀 감독 중 7명(복수 응답 포함)이 KCC의 이름을 불렀다. 김주성 원주 DB 감독과 은희서 서울 삼성 감독, 전희철 서울 SK 감독, 조상현 창원 LG 감독, 송영진 수원 kt 감독이 KCC

를 호명했다. 기존 허웅, 이승현, 라건아 등에 최준용까지 가세한 KCC는 15일 끝난 KBL 컵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새 외국인 선수 알리제 드슨 존슨이 결승전 승리에 앞장서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활약을 예고했다. 김주성 감독은 "KCC가 '슈퍼 팀'을 형성했다"고 말했고, 은희서 감독도 "포지션별 우수한 선수로 짜임새 있게 구성돼 요즘 추구하는 스포츠에 적합하다"는 이

유를 밝혔다. 조상현 감독은 "멤버 구성과 트랜지션이 좋다"고, 송영진 감독은 "선수들의 능력치와 경험치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전희철 감독은 "그냥 쎈다"라는 한마디로 KCC를 평가했다. 디펜딩 챔피언인 안양 정관장의 김상식 감독, 울산 현대모비스의 조동현 감독은 KCC와 함께 SK도 지목했다. 최근 두 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SK는 최준용을 KCC로 보냈으나 오세근이 가세했다. / 권도훈 기자

김상식 감독은 "선수 구성이나 보강 등을 보면 두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했고, 조동현 감독도 멤버 구성을 들어 큰 변수가 없다면 두 팀이 우승을 다툴 것으로 내다봤다. 고양 소노의 김승기 감독과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강혁 감독은 SK의 비교 우위를 점했다. 강 감독은 SK에 우승 경험을 지닌 선수가 많다는 점과 더불어 간판 포워드 안영준의 전역을 전력 상승 요소로 꼽았다. 가장 많이 이름이 불린 KCC의 전창진 감독은 "컵대회는 전력을 다하는 대회가 아니다"라며 몸을 낮추면서 "제대하는 허웅도 있고 대표팀 라인업을 형성하는 kt가 가장 강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권도훈 기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땅끝 섬마을에서도

함께 웃어요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 선미 “진지함 속 엉뚱함, 그게 선미스러움이죠”

## 싱글 ‘스트레인저’ 쇼케이스…“나르시시즘 담긴 곡”

가수 선미가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싱글 발매 쇼케이스에서 “이번 싱글은 ‘선미스럽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미는 “(팬들이) ‘원더걸스 때도 선미는 어딘가 좀 엉뚱했다’는 걸 많이 기억해주고, 그 모습을 사랑해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7년 차가 되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며 “선미가 이런 캐릭터야, 다들 알지?”라고 강조하고 싶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선미, 남다른 퍼포먼스

데뷔 17년 차, 솔로 활동 11년 차인 선미는 그룹 원더걸스와 솔로를 오가며 독보적인 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그간 선보인 ‘24시간이 모자라’, ‘보름달’, ‘가시나’ 등 히트곡들은 과격적 퍼포먼스와 중독적 멜로디로 선미만의 색을 입힌 ‘선미팝’으로 불렸다.

새 싱글 ‘스트레인저’(STRANGER)의 수록곡 3곡은 선미가 2021년 ‘꼬

리’(TAIL) 이후 약 2년 만에 내놓은 자작곡이다. 선미는 새 싱글에 “전체적으로 나르시시즘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며 “나라는 사람을 탐구하는 메시지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스트레인저’는 선미가 낯선 자신에게 끌리는 매혹적인 스토리를 세

가지 다른 무드로 풀어낸 곡이다.

선미는 “다른 곡 세 개가 연달아서 들리는 것 같은 곡”이라며 “세 구간의 BPM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선미는 처음 곡을 떠올렸을 때만 해도 한 곡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프로듀서 프란츠의 반응을 보고 자

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프란츠에게 ‘이게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더니 ‘요즘은 MZ잖아. MZ에는 먹힌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는 창작의 고통으로 고뇌하는 듯한 선미의 모습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담아냈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선미는 올블랙 의상의 댄서들로 둘러싸인 무대에서 몰입도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박쥐 모양의 손동작과 춤비 같은 움직임, 뚝뚝 끊기는 듯한 안무 등으로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선미는 수록곡 ‘칼 마이셀프’(Calm myself)에 대해선 “차 한잔이면 안정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선미가 강해졌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선미는 ‘스트레인저’가 차트 1위를 하게 되면 “폭우 속에서 춤을 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 이은정 기자



## ‘일짱’ 된 임시완…쿠팡 ‘소년시대’ 내달 공개

배우 임시완이 쿠팡플레이 새 시리즈에서 고등학생을 연기한다.

쿠팡플레이는 배우 임시완, 이선빈, 이시우, 강혜원 등이 출연하는 시리즈 ‘소년시대’를 내달 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년시대’는 1989년 충청남도를 배경으로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온양의 ‘찌질이’ 병태가 하루아침에 부여 ‘일짱’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해방계 된 외톨이 장병태를, 이선빈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부여의 은둔 고수 박지영을 연기한다.

주먹 하나로 일대 학교를 평정한 아산 백호 정경태 역에는 이시우가, 모든 남학생의 마음을 뒤흔드는 부여의 ‘소피 마르소’ 강선화 역에는 강혜원이 나선다.

드라마 ‘열혈사제’(2019), ‘편의점 셋별이’(2020) 등을 만든 이명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 오윤성 기자

임시완은 전학 첫날 부여 ‘일짱’으로 오

/ 오윤성 기자

## ‘국민 첫사랑’ 수지의 화끈한 변신…넷플릭스 ‘이두나!’

### 상대 역은 양세종…전직 아이돌과 평범한 대학생의 로맨스



넷플릭스 ‘이두나!’

인기 아이돌로 최성상의 위치에 올랐던 이두나(수지 분)는 흔한 로맨스물 속 사랑스러운 여자 주인공이 아니다.

극초반에는 시종일관 입에 담배를 물고 있고, 험한 욕도 자주 쓴다. 화가 나면 술병을 집어 들고 덤벼기도 한다.

성격도 당최 종잡을 수가 없다. 살벌하게 욕하다가 갑자기 활짝 미소를 짓는가 하면, 진지한 말을 하다가 모든 말이 장난이었던 마냥 능글맞은 웃음을 짓는다.

대중 앞에서 감정을 숨기는 데 훈련돼 있는 이두나는 정작 본인의 감정을 알아

차리고 표현하는 데는 미숙한 듯하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두나!’는 평범한 대학생 이원준(양세종)이 전직 아이돌 이두나와 한집에서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펼쳐낸다.

원준을 사생팬이라고 착각해 날을 세우던 이두나는 이내 알게 된 원준의 다정한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간다. 날마다 현관 앞에서 원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같이 놀자고 보채고, 수업 중인 원준의 강의실에 무작정 찾아가 밥 먹자고 불러낸다.

모두가 선망하는 인기 스타가 평범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설정은 영화 ‘노팅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비현실적인 소재와 캐릭터지만, 현실적인 감정선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공감을 자아낸다.

처음 마주하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일

희비비하는 사랑의 시작 단계를 밟고 있게 담아냈다. 주인공들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위기가 큰 사건으로 극적 재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 공을 들였다.

모자를 쓰고 걸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만큼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고,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두나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만 같지만, 이두나가 혼자 있을 때 내비치는 표정과 가끔 원준에게 툭툭 내뱉는 말들은 그 반대를 가리킨다. 결과 달리 여리고, 보이는 것과 달리 화려하지만은 않은 두나의 외로움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가 평범하지만 다정한 원준에게 빠지게 되는 이유를 납득시킨다.

첫사랑 김진주(하영 분)를 좋아하다가 상대방의 헛갈리는 태도에 결국 두나에게로 마음이 기우는 원준의 감정선, 그리고 모종의 사정 때문에 원준을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애매우진주의 감정선도 구멍 없이 세밀하게 그려진다. / 신지윤 기자

## SM, 엑소 찬열·세훈 이적설 부인…“전속계약 유효”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찬열과 세훈의 소속사 이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SM 측은 17일 “작년

말 체결한 SM과 엑소 멤버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엑소 활동도 SM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찬열과 세훈이 새로운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개인 활동을 펼친다고 보도한 바 있다.

SM 측은 둘의 이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멤버들 본인이 세운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박정수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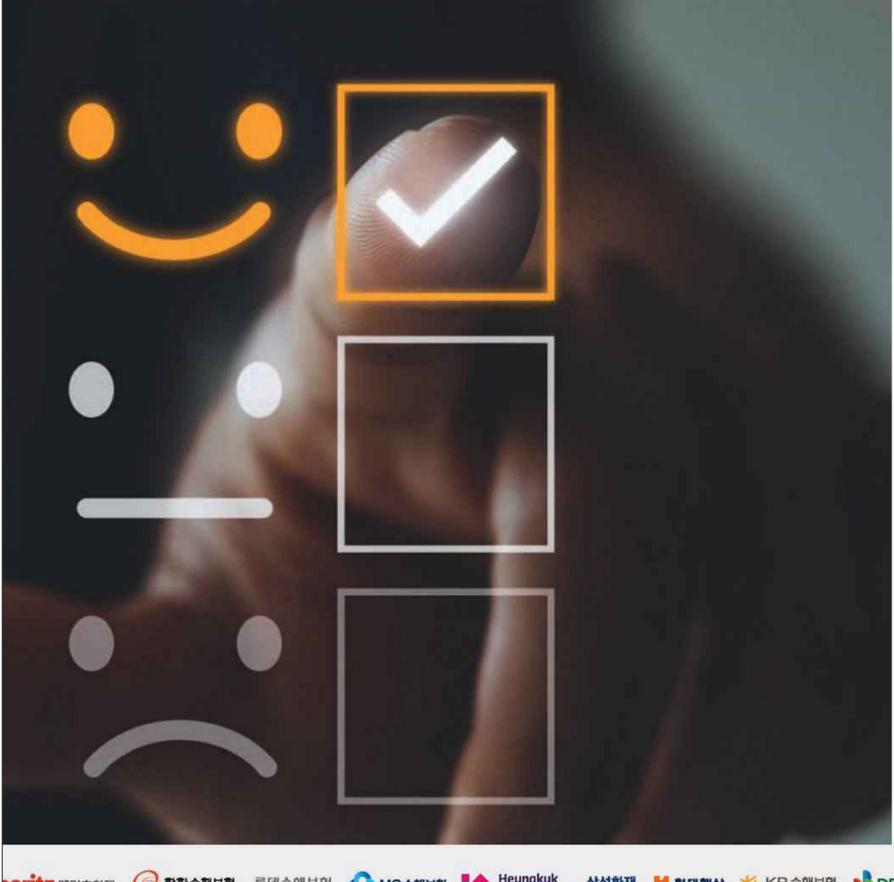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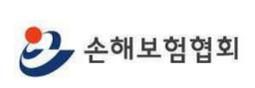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복판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손해보험에 대해 상담받고 싶을 땐?

##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대표 콜센터  
**02-3702-8500**



인터넷 & 모바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consumer.knia.or.kr)  
접속 → 보험상담 접수



카카오톡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채널 추가 '상담' 메뉴 클릭  
\* 이용 가능시간 : 08:10~11:30, 13:10~17:30 (주말, 공휴일 제외)

·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상품별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22.6.14.부터 카카오톡 상담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h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H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KOREAN Re
SGI서울보증
하나손해보험
AIG
NH농협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CHUBB
Carrot
kakaopay insurance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Cool하게

## 낮부터 거래하는 미국주식

“밤에만 거래하란 법은 없으니까!”

**하나증권 미국주식 주간거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서머타임 적용]

(서머타임 미적용 시: 오전10시~오후 5시30분까지)



###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란?

미국주식을 국내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신청없이 기존에 거래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문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별로 상이하므로(주요 국가 온라인 수수료 : 미국 0.25%, 중국 0.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등을 참고 바랍니다. \*미국 주식 매매 시 주당 0.003USD, 매도 시 0.0008% 제비용이 부과되며 기타 해외주식 거래 제비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